

『팔월의 빛』에 나타난 가부장적 남부 공동체와 오이디푸스적 상황의 의미*

정길화

차 례

- I. 들어가면서-가부장적 남부 공동체와 집단 무의식
- II. 『팔월의 빛』에 나타난 그림자 이미지
- III. 오이디푸스적 상황과 그 의미
- IV. 나오면서-삶의 비극성과 진실의 불확실성

I. 들어가면서-가부장적 남부 공동체와 집단 무의식

공업 중심의 북부가 산업화를 한창 진행하던 20세기로의 역사적인 이행기에 있어서, 미국 남부는 여전히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변방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농업 중심의 남부는 그러한 점에서 특이하고,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남부동맹의 일부인 미시시피 주 출신의 대표적 작가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단편소설인 「에밀리를 위한 장미꽃」(“A Rose for Emily”)(1929)에는 에밀리 그리어슨(Emily Grierson)의 낡아빠진 집의 모습이나 그녀의 가부장적 집안 내력과 그로 인한 심리적 이상 징후를 고딕 분위기로써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포크너는 전횡적인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고 심리적 시간이 지체된 미국남부라는 특별한 공간 속의 공동체적 삶과 피폐해진 남부인의 개인적, 내적 실재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주변화 된 인물들의 사회지체 현상은 『팔월의 빛』(Light in August)(1932)의 경우, 게일 하이타워(Gail Hightower) 목사의 집이 시내 중심부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변화의 과정과, 그의 상상애의 몰입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지체현상과 함께 폐쇄적인 남부의 농경공동체적 삶 속에 내적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이 남부인의 자부심, 순수, 무지이다. 남부인의 자부심은 포크너의 가장 장엄한 실패작인 『고함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1929)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나타난다. 이 소설의 독자들은 남부의 몰락한 명문인 콤펀(Compson)가의 장자인 켄틴(Quentin)이 누이동생 캐디(Caddy)의 처녀성이 내포하는 사회적 상징에 집착하는 내면의식의 흐름을 추적한다. 켄틴이 캐디가 지닌 인공적 대상물의 상실, 즉 처녀성의 상실로 인해 번민하는 마음의 갈등을 읽을 때, 독자들은 가문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몰락이라는 남부의 어두운 과거의 짐을 진 켄틴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켄틴의 번민은 배타적인 남부인의 순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켄틴의 누이동생에 대한 사랑과 콤펀가의 과거의 영광, 남부의 명예 등에 대한 집착은 남부인의 자의식 내지 남부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이 그에게 투영되어 독자들에게 내비치는 모습이다. 이처럼, 포크너의 모더니즘 기법의 지나친 내면의식의 묘사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등장인물들은 개인적인 심리의 차원의 조망-에고나 이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프로이드적인(Freudian) 등장인물들로서 해석(Collins 115-9)-을 넘어서, 이들은 융적인(Jungian) 집단 무의식을 드러낸다.

포크너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사회적/심리적 지체현상과 남부인 으로서의 자부심 내지 순수나 무지의 기저나 표면에 어두운 외부적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남부 공동체의 가부장적 경제체제와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농경중심의 문화, 이들과 동반한 성차별주의이다. 필자는 『팔월의 빛』에 나타난 가부장적 남부 공동체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가 남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져다준 트라우마-즉, 어두운 그림자나 상흔-와 연관된 개인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초점을 두겠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남부 공동체의 왜곡된 사회 문화적 코드가 인간 합일과 성적/인종적 정체성, 존재와 진실의 의미까지도 혼동케 하였음을 살펴보겠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포크너와의 대담 내용을 참조로 하여 포크너의 작품이 보편성을 띠는 근거로서의 심리학적/신화적 차원을 조망하고, 칼 융(Carl Jung)의 이론과 오이디푸스적 상황을 제시할 것이다. 포크너가 창조한 허구적 신화는 미국 남부사회라는 특정집단의 심리를 넘어서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 탐구인 것이다.

포크너 자신의 경우, 그는 미시시피의 한 작은 마을 출신으로 스스로 타인들에게서 다소 격리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한 포크너는 남부문화가 지닌 어두운 유산과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작품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승화된 예술로서의 성취를 추구하였다. 포크너는 자신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통하여 남부사회의 구체적 사건을 모태로 한 『팔월의 빛』에서 인간 존재의 심리학적, 신화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남부인의 집단 무의식은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과 상상력을 통하여 드러난다. 마치 남부의 명망 높은 가문의 후예인 포크너가 선조들의 영광스런 과거를 회상하듯이, 하이타워 목사는 선조의 “잃어버린 영광의 한순간”(Irwin 62)을 상상력으로 포착한다.

우리는 『팔월의 빛』(1932)에서 3 명의 주요 인물들인 하이타워, 조애너 버든, 조 크리스마스가 그들의 할아버지들의 삶에 의해서 그들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왔음을 즉각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 하이타워는 본래 그의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의 기병대 급습 사건 중에 우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제퍼슨에 왔으며, 그가 불명예를 겪고 난 후에도 제퍼슨에 계속 남아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저녁 해질 녘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의 할아버지의 기병대가 읍내로 쳐들어오는 과거를 회상하는 운명을 다소 타고 났기 때문이다. (Irwin 61-2)

하이타워 목사의 할아버지에 대한 상상은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기병대 급습 사건이란 역사적 사건과 교묘히 연결된다. 제퍼슨 읍에 정주한 하이타워 목사는 아내의 정사 사건으로 인하여 불명예를 겪는 와중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매일 해질 녘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공간화 된” 과거의 한 순간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부사회와 역사를 배경으로 한 포크너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되풀이되는 꿈과 환상 속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이나 깊은 심리적 상흔, 즉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연관 짓자면, 옴은 『인간과 그

의 상징들』(*Man and His Symbols*)(1964)에서 “되풀이되는 꿈”이란 “인생에 대하여 꿈꾸는 사람의 태도 속의 특정한 결함을 보상받기 위한 시도”이거나, “어떤 특정한 편견을 남겨둔 트라우마의 순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또는 “가끔씩 중요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할 수도 있다”(Jung 53) 라고 밝힌 바 있다.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꿈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되고 난 훨씬 뒤에까지 똑같은 꿈을 꾸어 온 경우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꿈은 늘상 꿈꾸는 자의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특정한 결함을 보상하기 위한 시도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편견을 남겨 둔 트라우마의 순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가끔씩은 중요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할 수도 있다. (Jung 53)

융의 해석을 따르면, 쾨팅이나 하이타워 목사, 달(Darl)그리고 토마스 쉐펜(Thomas Sutpen) 등을 통하여 보이는 한편의 허황된 시도와 상상이나 꿈들은 모두, 그들의 내적 결함이나 정신적 외상(外傷), 즉 트라우마를 드러낼 뿐 아니라 미래에 이를 해결하려는 본능적 욕구나 충동에서 비롯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융은 초현실주의 파에 속하는 화가인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시간은 독 없는 강』(*Time is a River without Banks*)을 예로 들어, “물고기, 바이올린, 패종시계 그리고 연인들의 이미지들의 예상하지 못한 결합”을 그려 놓아 이들이 “모두 꿈의 이상함”(41)을 나타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포크너의 실험적인 작품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유동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크너의 등장인물들의 “이상한” 꿈의 강박적인 반복은 소외된 자아와 심리적 상흔 뿐 아니라 심리적 시간의 유동성, 그들의 생존과 자유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I. 『팔월의 빛』에 나타난 그림자 이미지

쓰라린 패배의 상흔을 지닌 미국 남부의 과거 역사는 남부인들에게 자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심어 놓았다. 포크너의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꿈과 환상이 보여 주는 성격적 결함이나 심리적 상흔은 이와 같은 비극적 남부 역사가 반영된 것이다. 포크너의 통시적 조망에서 비롯된 등장인물들이 지닌 그림자 이미지는 죽음을 상징한다. 시간에 대한 자의식과 강박 관념을 지닌 채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에게서 이런 점이 드러난다. 배타적 가부장주의에 기반을 둔 남부 공동체는 조 크리스마스(Joe Christmas)나 켄틴 등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에 맞서 이들은 생존을 위한 욕망과 투쟁,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포크너의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살펴볼 때, 이들의 그림자 이미지는 양면성을 띤다. 우선, 이들은 외부의 억압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자신의 “그림자의 배후에 있는 제2의 상(像)”(Jung 177)인 아니마/아니무스를 추구한다. 반면에, 이들은 성격적 결함이나 악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용에 의하면, 무의식이나 그림자는 인간의 선악처럼 인간심리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모호하다(Jung 173).

포크너는 남부 역사가 개인과 집단에 끼친 영향을 담기 위해 특수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의식이나 개성화의 과정과 연관된, 모호한 그림자 이미지를 탐구한다.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1847)의 히스클리프(Heathcliff)가 “일부 부정적이고 악마 같은 상—아마도 에밀리 브론테 자신의 아니무스를 표현”(Jung 190)한 것으로 해석되듯이, 남부 공동체가 수용하지 못할 악한이나 악마 같은 상을 지닌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도 “우리의 더 어두운 면”(Dobie 57)이라는 무의식의 그림자 이미지를 지닌다.

그림자는 우리의 좀 더 어두운 면이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림자는 악한으로 영화에 등장하며, 중세 신비극에서는 악마로, 『실낙원』에서는 사탄과 같은 강력한 문학적 인물로 등장

한다. (Dobie 57)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는 개인의 경험과 연관된 에고의 의식적인 영역과 집단적 요인들과 관련된 무의식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Jung 168). 그림자는 부모나 이성(異性)이 지닌 이미지와도 연관되며, “이성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밀받침하는 원형적 이미지가 있는데, 융은 그것을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불렀다”(스토 68). “아니마는 또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고리로도 설명되며, 또 심지어는 무의식의 화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70). 이렇게 볼 때, 포크너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이미지와 아니마/아니무스의 추구는 소외와 무력감, 절망과 고독감에 빠진, 주변화된 남부인의 개인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영역을 드러내며, 또한 이와 같은 실존적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남부인의 복잡심리를 반영한다.

『고함과 분노』에서 캐디에 대한 켄틴의 심리적, 상징적 관계에서 짐작하듯이, 『팔월의 빛』의 조 크리스마스/조애너 버든(Joanna Burden), 조 브라운(Joe Brown)과 바이런 번치(Byron Bunch)/리너 그로브(Lena Grove) 등의 경우에도 그림자나 아니마/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들의 복잡한 심리적 관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우선 켄틴의 어두운 그림자는 자신의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광스러운 과거라는 남부의 퇴락한 유산이나 상흔, 또는 귀족 가문의 몰락이나 남부의 명예 훼손과 연관된 캐디의 처녀성 상실에 대한 자의식에 사로잡힌 모습에서 발견된다. 켄틴 뿐 아니라 『팔월의 빛』의 남성 인물들의 경우에도 이성에 눈떠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니마”, 즉 “남성의 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요소”(Jung 30)가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Dobie 57). 이처럼 융의 아니마/아니무스의 개념은 그림자 이미지에 연관된다.

포크너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이미지는 가부장적 남부 공동체의 과거의 어두운 유산이나 억압적인 사회적 코드, 시간/공간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고착, 가혹한 인종주의 및 왜곡된 남녀관계, 그리고 개인의 성적/인종적 모호성에 대한 기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세대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는 그림자 이미지는 현세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억압을 가한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자신의 외조부인 닥 하인즈(Doc Hines)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닥은 크리스마스의 부친을 살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뒤,

크리스마스를 고아원 계단에다 내버린다. 닥은 그 고아원에서 일자리를 얻어 크리스마스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심리가 매우 뒤틀린 왜곡된 인물이다. 닥은 크리스마스가 잡혼의 소산이라고 의심하며, 신의 저주가 내려졌다고도 생각한다. 남부의 농경문화는 토지와 흑인의 노동력에 기반을 두고 소수의 백인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기에 흑백 혼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에도 불구하고, 닥은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크리스마스를 백인에게 내려진 신의 저주로 여기며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남부 공동체는 인종적 모호성을 띤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그들에 대한 도전이자 이질성을 띤 것으로 간주한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마스래,” 그가 말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는 외국인이야?”

“백인 중에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붙인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십장(什長)이 물었다.

“그런 이름을 붙인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다른 이가 말했다. (LA 33)

배타적인 남부 공동체는 자기희생의 표본인 예수처럼 33세의 나이에 처참하게 살해되는 운명을 지닌 “크리스마스”의 이름에 대하여 매우 의아해하며,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한다. 남북전쟁의 패배의 역사와 남부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만들어낸 죽음이라는 그림자 이미지는 인종주의가 배태한 것이기도 하다. 남부 공동체는 흑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조애너 버든 가에 대해서도 “백인 우월주의를 위협하는”(LA 249) 세력이나 북부 양키나 이방인 취급을 한다. 조애너의 할아버지는 노예폐지론자로 흑인 투표권과 연관되어 존 사토리스(John Sartoris) 대령에게 총을 맞아 죽으며, 이복 오빠 캘빈(Calvin)도 비극적 운명에 처한다. 이처럼 남부의 질서나 가치관에 위협이 되는 개인은 배타시되고, 소외를 겪거나 죽음에 이른다.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무의식과 연관된 그림자 이미지가 양면성을 띠며, 출생 뿐 아니라 흑/백의 인종적 정체성이나 선/악이 불분명하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반-그리스도의 상을 모두 지니고 있다. 즉, 크리스마스는 인종주의

에 의한 자기희생의 긍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살인, 밀주업, 여성적인 것이나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 등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 행각의 부정적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다. 리너 그로브도 양면성을 띤 인물로, 성모 마리아에 유추(Millgate 133)되는 그림자 이미지를 지니지만, 남부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회적 코드에 의해서 미혼모라는 사회적 일탈의 낙인이 찍혀 있다. 리너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도망친 조 브라운/루카스 버치는 악한이라는 부정적 그림자 이미지를 지닌다. 욕망과 직업상의 불안정에 끌려, 그는 떠돌이 노동자로 조 크리스마스와의 짝패를 이루지만, 거짓말을 일삼고 크리스마스를 밀고 한다. 감추며 뒤바꾸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는 인종적 정체성이 모호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심리를 지녔다. 『팔월의 빛』에서 등장인물들이 남부 사회의 코드에 의한 소외와 부정적 그림자 이미지를 탈피하여 인간합일과 긍정적 그림자 이미지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바이런 번치와 리너 그로브의 관계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리너의 출산을 도우는 바이런, 하이타워 목사, 크리스마스의 관계를 통하여 원초적이고 낭만적이며 이타적인 인간관계의 회복이 제시된다.

크리스마스와 조애너 버든의 남녀관계 역시 모호하다. 이들 둘 모두 그리스도/악마의 양면적 그림자 이미지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학적 내지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둘 모두 흑/백의 혼종의 그림자가 모호하게 드리워져 있다. 독신녀인 조애너 버든은 “십자가에 못 박힌”(LA 264) 자기희생의 이미지를 지녀, 사회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그녀[조애너]는 흑인들에게 헌신함으로써 자신이 사랑할 기회를 희생하였다”(Ruppersburg 162). 조애너는 외롭고 혹독했던 과거의 삶이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크리스마스와 결혼하여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 조애너는 배타적인 남성중심주의 속에 생존을 위한 무의식의 발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하지만, 그녀의 “가정적인 삶의 유혹”(Ruppersburg 162)에 대하여 크리스마스는 아주 반기를 든다.

안될게 뭐야? 그건 너의 나머지 일생동안 안락과 안정을 의미할 거야. 넌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리고 넌 이처럼 그녀에게 장가드는 게 좋아 생각에 잠겨 ‘아냐, 내가 지금 굴복하면, 내가 선택하여 날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삼십년간을 모두 부정하는

게 될 거야.’ (LA 265)

이 장면에 대하여 휴 루퍼스버그(Hugh Ruppersburg)는 “황무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유혹”(163)에 연관 지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애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즉 “내가 지금 굴복하면, 내가 선택하여 날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삼십년간을 모두 부정하는 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안락과 안정”을 거부한다. 크리스마스는 남부 공동체가 사회적 코드로 몸 안에 심어 놓은 인종적 유전인자를 스스로 숨기는 가식적 삶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탄생과 버려짐, 고뇌와 방황, 그리고 실존적 선택과 비극적 결말에 이르기까지, 크리스마스의 인종적 색채는 자신의 모호한 그림자 이미지처럼 늘 선명하지 않다. 단지 백인 공동체의 전형적인 이분법에 의해 타자와 소외, 절망과 회생이 요구될 뿐이다.

크리스마스는 남부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악몽과도 같은 존재이다. 남부 공동체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 이미지를 지닌 개인을 흑/백 분리의 사회적 코드에 의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내적으로 모호한 인종적 정체성에 의해 자신의 그림자 이미지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며, 거부와 선택을 반복한다. 인종주의의 이분법을 위협하는 모호한 출생 배경을 지닌 크리스마스가 여러 백인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남부 공동체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이는 인종주의를 타파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의 발로이자 전복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역설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자신이 백인이냐 흑인이냐를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이분법에 얽매인 남부공동체에 정면 도전하는데, 이는 인종적 정체성의 선택을 자신의 자유 의지에 맡기는 행동인 것이다.

역사와 지역상의 특수성을 지닌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포크너의 소설들은 고뇌하는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등장인물들의 의식/무의식, 시간/공간의 이동과 흐름을 통해 표현된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가진,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포크너는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에 등장하는 에밀리와 호머 배런(Homer Barron)이 남부와 북부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어떤 작가도 메시지 전달과 살아서 고뇌하는 인물 창조의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였다

(Gwynn 47). 포크너 소설이 지니는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 두 가지 중에서 포크너가 선택한 것은 후자인 것이다. 또한 포크너는 “어떤 사람이든 그의 과거로부터 작동한다. 어떤 사람도—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총화(總和)이다.....어떤 점에서는.....자신의 미래의 총화이다”(47-8)라고 언급하였듯이, 과거의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집단의 의식과 무의식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개인/집단의 의식/무의식에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상호침투 하듯이 관계있음을 포크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애너는 20년간 홀로 살아온 인물로, 인종차별을 해온 남부공동체는 그녀에 대하여 사회적 편견을 지니고 정신적 억압을 한다. 조애너는 크리스마스와 알게 된 후, 그에게 “완전한 책임”(LA 268)을 지우고, 흑인학교에 “주기적인 방문”(264)을 함께 하려 한다. 조애너가 흑인학교와 대학을 도우는 것에 대해 남부공동체는 그녀를 부랑자로 취급한다. 조애너가 홀몸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 남부공동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깜둥이 애호가”(292)로 분류되는 백인들, 즉 조애너나 그녀의 선조들은 엄격한 남부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사회적 역할을 배타적인 남부 공동체의 인종적 편견에 의해 제재당하고 정신적 억압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한편, 남부공동체가 견지해온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에 저항하여, 인종적, 성적 차별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생존의 본능적 욕구와 행동이 이들 소외된 인물들로부터 일어난다. 조애너는 고립무원의 세계 속에 살아온 크리스마스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헛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그가 그녀의 모든 사업들을 양도받기를 원했다”(LA 268). 조 브라운과 함께 은밀히 밀주업을 해온 크리스마스는 공개적인 사회적 봉사나 기부를 통하여 백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나 계몽을 하려는 “(그녀의) 계획이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68). 그들은 남부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관계나 부부관계가 아닌 일순간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일탈의 모호한 남녀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애너가 크리스마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기려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는 그녀가 과거로부터 노예제나 투표권의 문제로

이어저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짐과 부당한 행위들,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수용한 것이다. 즉, 상징적 의미에서 볼 때, 조애너의 행위는 흑/백으로 분리된 세계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몸짓이다. 또한 이는 인종주의로 분리된 세계를 전복시키려는 그녀의 자유의지의 발로이자 백인우월주의의 남부공동체에 대한 위협적 행동인 것이다.

크리스마스와 조애너의 상호 관계는 모호하고 복잡하다. 조애너는 여성성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적 정체성이 전도된 상태이다. 조애너는 “남성의 강인함과 불굴”(LA 234)을 지녔으며 “남성처럼 단련된 근육들과, 유산과 환경에서 생겨난, 남성처럼 훈련된 사고의 습관”(235)을 지녔다. 또한 조애너는 “여성적인 동요나 눈에 띄는 욕망, 그리고 마침내 굴복하게 될 의향이 전혀 없”(235) 인물이다. 또한 그들은 성적 정체성이 전도된 관계로, “내가 여자이고 그녀가 남자인 것 같았다”(235) 라며,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조애너가 조 (크리스마스)의 남성적 힘을 강탈했다”(Bush 493) 라고 지적된 바 있듯이, 남부의 어두운 과거, 즉 전통과 환경이 만들어낸 그림자 이미지 이들의 성적, 인종적 정체성을 바꿔 놓아, 혼란스런 심리를 지닌 인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조애너와의 다툼에 대하여, 크리스마스는 “그건 마치 자신이 또 다른 남자와 실제 가치도 없는 것에 대하여, 몸으로 싸웠고, 원칙에 대해서만 싸웠던 것 같았다”(LA 235) 라고 회상한다. 여기서 원칙이란 크리스마스가 자신의 성적 본능에 충실하여 “그녀의 처녀성을 차지할 그의 남성적 권리”(Ruppersburg 137) 를 말한다. 남부공동체는 여성의 혼전 순결과 정절을 사회적 도그마로 내세워, 농경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애너도 이러한 남부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크리스마스의 침입과 겁탈을 받아들이면서도, 남부의 도덕규범을 위배하지 않으려는 조애너의 거부의 몸짓을 보인다. 남부의 사회적 통념의 영향은 크리스마스에게도 나타난다. 크리스마스는 백인여성인 조애너와 관계를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마치 자신이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크리스마스는 조애너의 집에 들를 때, 정식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어스름 녘이 되어서야 불꺼진 부엌 쪽으로 몰래 잠입하듯 집에 들어간다(LA 235-6). “그건 마치 매번

그가 새로운 그녀의 처녀성을 강탈하기 위하여 몰래 들어가는 것 같았다”(234). 크리스마스의 뒷문출입 자체는 흑백의 인종차별에 대한 자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남성적인 특색을 지닌 조애너는 자신의 그림자이자 아니무스인 크리스마스와 결혼하려 한다. 그녀는 크리스마스와 관계를 통해 마치 임신한 것처럼 환상을 품고 있다(LA 265). 조애너는 “크리스마스에게 자신이 41세라고 말하며 저편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했다”(240). 조애너는 폐경기에 몸이 불어나자 임신한 것으로 착각한다. 남부 공동체에의 편입을 의미하는 결혼에 대하여 크리스마스는 이제껏 자신이 애써 살아 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간주한다. 맨 처음 크리스마스가 조애너에게 접근한 이유는 혼자 사는 백인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과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226)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리는 고양이처럼 치달렸다. 그에게 한 장소는 다른 곳과 똑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 어느 곳에서도 그는 고요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거리는 항상 텅 빈 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자기 모양새대로 치달렸다. 그는 움직여야 할 운명을 진 채, 시들해 지고 몰아치는 절망, 자신의 기회들이 시들해지고 몰아쳐지는 용기를 잃게 되는 절망에 의하여 조종되는 자기 자신을 침묵 속에서, 무수한 화신들 속에서 발견하였을지 모른다. 그는 33세였다. (LA 226)

크리스마스는 “고양이처럼” 정처 없이 “계속 달려가는” 세상에 내던져진 “공허한” 존재로서 실체 없는 “무수한 분신들 속에, 침묵 속에, 이동의 운명을 지닌.....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33년간 극도로 소외된 삶을 살아온 크리스마스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지녔지만, 조애너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무의식적인 인간 합일을 시도한다. 이처럼 실존적 상황에 처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자 이미지를 지닌 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기로에 처해 있으며, 이때 그의 나이는 그리스도가 자기희생을 한 “33세였다.”

여성적인 것 뿐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크리스마스는 거부 반응을 보인다. 맥이천 부인(Mrs McEachern)이 챙겨 주는 음식을 내동댕이치거나(LA 154-5) 바이런 번치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할 때도 배고프지 않다고 거절한 다든지(35), 조애너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는 24시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226, 236)라고 묘사된다. 생물학적 본능이랄 수 있을 성과 음식에 대한 왜곡된 반응은 출생의 비밀이 지닌 생물학적 부모의 인종적 모호성과 함께 남부문화가 생산한 소외된 인물을 완성해간다. 남부의 인종주의가 생산한 모호성을 대변하는 크리스마스는 남부의 성차별주의의 희생양인 조애너와 함께 남부 공동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 주변화된 등장인물들은 남부사회가 만들어낸 실존적 상황에서 인간 소외를 겪으며, 내적 “절망”(226)에 빠져 있다.

크리스마스는 “지난 15년간 백인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고선 자신이 흑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며 특별한 만족을 취해 왔다”(Ruppersburg 136). 인종주의에 대한 자율적인 거부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아니마와 자신의 그림자를 거절하고 있을지 모른다”(Tebbetts 80). 크리스마스의 여성혐오적인 심리에 대하여 테베츠(Tebbetts)는 무의식과 연관시켜, “여성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는 두려움은.....분명코.....에고의 경쟁자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80-81)라고 해석한다. 테베츠는 크리스마스가 “여성과 흑인에 대한 두려움”(80)을 지닌 이유를 개인의 의식이나 무의식의 구조, 즉 크리스마스의 “성격 내부에”(81) 들어 있는 자신의 아니마나 그림자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본능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인종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남부의 사회문화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서 크리스마스는 자유롭지 못하다. 크리스마스는 “대담하게”(LA 236) 조애너가 홀로 사는 집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서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다. 조애너는 반항하는 기색은 없고 “마치 그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236). 크리스마스는 남성의 힘으로 여성을 포획하려는 태도를 “고요한 격분의 상태로”(236) 보여준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네게 보여주지! 내가 네년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236)라고 광분하며 그녀의 옷들을 찢어버린다. 크리스마스는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암컷과의 교미를 끝

낸 것처럼, “난 적어도 그녀를 여자로 만들고야 말았어”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이제 날 증오해. 난 그녀에게 그 정도는 교육시켰어’(236)라고 되된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뒤틀린 내적 실재를 지닌 어두운 그림자 이미지를 지닌 인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애정에 바탕을 둔 성관계가 아닌 왜곡된 남녀관을 지니고 있다. 이는 또한 사랑과 증오, 관용과 처벌의 이분법적 도그마에 사로잡힌 남부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과 인종적 모호성으로 인한 실존적 고통, 그리고 남부공동체의 왜곡된 종교관이 강요하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과 이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 등이 보여 주듯이, 남부의 왜곡된 문화는 인간 개인의 소외와 존엄성을 박탈해 왔다.

Ⅲ. 오이디푸스적 상황과 그 의미

이제까지 살펴 본 바로는 포크너의 『팔월의 빛』에는 미국 남부는 백인남성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가부장적, 인종주의적, 성차별주의적인 태도와 관습이 공동체 내에 깊숙이 침투하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북전쟁의 쓰라린 패배를 포함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남부인의 집단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남부인 특유의 내면의식과 사회 환경과 문화, 역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크너의 소설들이 어떻게 그 보편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의식적, 무의식적 영역의 어두운 그림자나 아니마, 아니무스 등의 개념이 인간의 보편적 내면의 실재라고 간주할 때, 이와 연관될 수 있는 신화, 즉, 오이디푸스 신화 역시 인간 심리의 보편적 실재로 생각될 수 있다.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M. -L. von Franz)는 “남성이 자기의 지성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부정적인 아니마에 의한 경우가 많다”(Jung 181)라고 주장하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답하는 오이디푸스를 그린 19세기 프랑스의 그림”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때, 『팔월의 빛』에서 신화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의미는 크리스마스가 자신의 참된 자아,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화두로 던지는 데에서 나타난다.

크리스마스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것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할 뿐, 포크너 문학의 본질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화두에 깊은 속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고아원에서 다른 애들한테 “깜둥이”란 말을 들으며 소외된 삶을 살아와야 했던 크리스마스는 여성에 대하여 왜곡된 감정을 품고 있다. 조애너가 흑인에 대한 환상과 인종주의의 그림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혼돈은 물론이고 어릴 때 충격으로 인하여 여성이나 여성적인 것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태도를 보인다. 크리스마스와 조애너는 둘 다 미국 남부 사회가 만들어낸 주변화된 인물들로서 인간 소외를 겪으며,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팔월의 빛』은 전형적인 비극의 특색을 지닌 점에서도 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민터(Minter)(1999)나 밀게이트(Millgate)(1978)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진지한 독자라면 누구나 크리스마스의 끔찍한 역경과 마주칠 때, 우리는 “연민 또는 공포”(Hutton 57)를 느낀다. 따라서 『팔월의 빛』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시학』(*Poetics*)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극의 장르에 걸맞은 작품이다. 즉,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근원에 무지한 오이디푸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팔월의 빛』에서 보이는 크리스마스의 고초 역시 남부공동체에 한정될 인종적 모호성이라는 그의 외양에 대한 의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 모두의 내면적, 보편적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한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크너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든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Gwynn 118) 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그의 동료들, 또는 그 자신의 본성이나 그의 환경의 희생양이다”(118)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포크너에 의하면, 인간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118) 크리스마스의 경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118)라고 대답했다. 포크너는 계속하여, 크리스마스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유일한 구원은 인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간이란 종(種)을 벗어나 사는 것이었다”(118)라고 까지 주장하였다. 크리스마스는 흑/백으로 엄격히 차별하는 인

종주의의 틀에서 교묘히 벗어난 행각을 일삼으며,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지키려 한다. 생존을 위한 욕망, 갈등, 그리고 투쟁은 곧 그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포크너는 크리스마스가 “비극적”(118) 인물로서, “나에게 가장 비극적 조건”(118)이란 “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118)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팔월의 빛』은 전통적인 비극의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연민과 공포의 양면 감정과 전형적인 비극적 인물인 크리스마스의 자기탐구 과정을 담고 있다. 『팔월의 빛』은 남부공동체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실재를 오이디푸스적 상황에 담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흑인의 피가 흐르는데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오이디푸스적인 상황에 처한 비극적 인물인 크리스마스는 “숲 속의 큰 집”(LA 226) 근처에 이르게 된다. 한 “깜둥이 소년”(227)을 만난 크리스마스는 그 집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227) 백인여성 조애너가 홀로 살고 있으며, “이곳 주변의 흑인들이 그녀를 보살피고 있다”(227)는 대답에 그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크리스마스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로 중무장한 미국 남부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야 할 독신 백인여성에 대한 접근과 접촉금지 대신에, 마치 흑인과 백인이 어울릴 수 있는 이상한 새로운 공간을 발견한 것 같은 충격에 빠진다. 크리스마스는 “흑인들이 그녀를 보살핀다구?”(227)라고 의아해하는데, 여기에 흑/백의 인종차별주의에 고착된 남부 공동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작가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포크너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소년의 입을 빌려 전한다. 적어도 소년의 눈에 비친 크리스마스는 방랑자, “뜨내기”(LA 227)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 훔쳐 볼 수 있다. 마치 전도된 세상을 목격한 듯 의아해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에 “소년은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그 남자 사이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같았다”(227). 조애너처럼 크리스마스도 남부 공동체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의 벽, 즉 흑인남성은 백인여성에게 성적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백인여성 은 백인남성의 보호 하에 가정에서 정절을 지키고 결혼과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에, 남부 공동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집단적으로 형성해온 사회의 분단된 벽과 문을 허물어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인간 합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 등이 조애너와 흑인 이웃들을 통하여 표출된다.

만일 크리스마스가 흑인이라면, 백인여성과의 성관계는 남녀 간의 사랑의 성취와 흑백으로 분리된 세계의 인간 합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배타적이고 인종주의를 지닌 남부 공동체의 도그마를 위반하고 사회적 터부를 위반하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에 크리스마스는 남부 공동체로부터 심리적 압박과 실제적 위협을 받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인종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크리스마스 개인에게는 조애너에 대한 심리적 강박관념으로 드러난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백인여자가도 그러지 않았어. 오직 깡둥이여자 만이 나를 내쫓았지, 날 내쫓아 버렸지”(LA 236)라고 생각하며, 백인여성인 조애너가 오두막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리라 다짐한다.

조애너가 크리스마스를 처음 받아들일 때, “아직 뺨뺨해지지는 않았지만 죽은 여자의 몸”(236)처럼 그의 손이 느낄 정도로 그녀는 백인남성 중심의 남부 공동체로부터 성적 억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성차별주의를 지닌 남부 공동체가 빚어낸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백인여성인 조애너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는 훗날 아래에서 30세로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40세 정도이다. 남부 공동체는 백인여성들의 혼전 순결이나 정절, 가족주의의 도그마로 가득 차 있지만, 백인남성들은 성적 방탕함을 대대로 물려주며 이를 마치 남부의 전통인양 당연시하고 즐겨왔다. 백인남성 중심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그들은 백인여성들에 대한 성적 억압을 자행해 왔다. 남성 중심의 남부 경제체제 하에서 여성들은 빅토리아조의 여성들처럼 가정적이고 온순하기만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성적 억압의 부작용으로 조애너는 정상적인 삶의 일상적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내재된 남성적 요소, 즉 자신의 아니무스, 또는 그와 정반대와도 같은 크리스마스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칠게 다룬다. 즉, 크리스마스가 “내가 여자이고 그녀가 남자인 것 같았다”(235)라고 밝히고 있듯이, 성적 정체성이 뒤바뀐 것 같은 조애너/크리스마스의 상징적 관계는 아니마/아니무스가 혼재된 모호한 관계이다. 또한 혼종의 기억과 실체가 상

존하는 남부의 심리적, 실제적 과거/현재의 역사를 미루어 짐작할 때, 조애너/크리스마스의 흑/백 인종적 정체성은 불분명하다. 이는 그들의 모호한 행각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애너가 그와 성관계를 가질 때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깜둥이! 깜둥이! 깜둥이!”(LA 260)라고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정신적 억압을 가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그림자 이미지를 지닌 타자에 대한 심리적 억압을 가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조애너의 기괴한 태도는 남부 공동체가 백인여성에게 성차별주의를 견지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는 인종차별주의와 교묘히 결합되어 있다. 남부 공동체의 인종주의는 조애너가 흑인 학교를 도우면서도, 인종적 편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였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인간 합일의 가능성은 남부문화의 어둡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어둡고 깊은 그림자를 개인의 영혼에 드리우고 소외의 상흔을 남긴다. 크리스마스와 조애너는 남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가 드리운 부정적인 그림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적, 인종분리주의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이들의 소외와 역경은 본래 농경에 고착된 남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대지로부터의 분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소외된 노동과도 연관지울 수 있다. 이는 떠돌이 신세의 크리스마스나 조 브라운/루카스 버치, 이를 찾아 나선 리너 그로브의 소외된 삶의 모습 뿐 아니라 벤지(Benji)나 애디(Addie) 일가, 토머스 첫펜의 신화적 첫펜즈 헨드레드를 일구어 나가는 모습에서도 대지와 노동의 문제가 이들의 의식/무의식 형성과 합당한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토지를 근간으로 한 남부문화는 흑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성적 착취까지 일삼아 온 농경 중심의 보수적인 사회경제체제이다. 이 체제의 부산물로서, 인간 합일이라는 종교적 보편성을 지향해야 할 미국 남부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도덕적 이중성을 드러낸다. 인간 소외를 촉진해온 남부경제 체제의 “도덕적 약탈 행위”에 대하여 김옥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언뜻 남부의 경제는 ‘엄격한 도덕성의 반석’ 위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부는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종교적 열정에 들떠 있기 때문이다. 남부를 두고 흔히 ‘콘 벨트(옥

수수 시대)’라고 부르지만 또한 ‘바이블 벨트(성서 시대)’라고도 부른다. 그동안 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가 남부에서 부쩍 힘을 떨쳐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하여 아예 입을 다물고 있거나 비록 간접적이거나 그것을 두둔하였다. 미국 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토착 인디언을 악마나 마귀로 간주하여 그들을 죽이는 행위를 합리화한 것처럼, 남부 종교 지도자들은 종이나 노예는 상전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들먹이며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김옥동 353)

남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무지, 순수, 그리고 그것의 상실이라는 포크너의 창작 주제는 토지를 근간으로 한 농경사회인 남부 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가부장적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생존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남부경제체제의 자기모순은 인간 소외를 촉진하고 인간 합일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이는 남부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그리고 종교적 광신주의 등에서 비롯된 사회 환경의 불안을 보여준다.

토지와 연관된 인간 소외의 주제는 『팔월의 빛』을 포함하여 1920년대 말부터 1936년까지 쓰인 포크너의 대표작들인 실험적 서사구조 속에 확연히 드러나며,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지닌 등장인물들의 내적 진실의 추구과정에서 보인다. 예컨대 『내가 누워 죽어 갈 때』(*As I Lay Dying*)(1930)에서 소작 농 집안의 가장인 안스(Anse)는 자신의 아내인 애디(Addie)에 의해서 무능력한 거짓말쟁이로 묘사되며, 그 경제적 힘이 다한 상태로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애디는 “그는 자기가 그때 죽은 줄도 몰랐어요”(AILD 173) 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1936)에서는 남부의 인종적 순혈주의와 근친상간의 문제가 상호 얽혀 있다. 포크너는 이를 사회적,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통시적으로 조망한다. 셋펜이 “셋펜즈 헨드레드”라는 대지를 일구어 나아가는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소외의 주제는 농경 중심의 미국 남부에서는 인간과 토지와 관계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다.

백인남성의 그림자 이미지를 지니며, 또 다른 자아로도 해석될 수 있는 흑인(일 경우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제 말소된 것인가? 남북 공동체의 사회적 현실을 넘어서 인간 소외와 합일의 보편적 문제로까지 확장하여 해석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뿌리는 어느 정도 살아남아 있는가? 2009년 2월 14일자로 난 존 하워드 그리핀(John Howard Griffin)의 『블랙 라이크 미』에 대한 『중앙일보』 서평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21 세기에 이른 오늘 날까지도 백인들이 “흑인의 성생활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을 지니고, 마치 “흑인은 성기가 엄청나게 크고 매우 다양한 성적 경험을 가졌으며 지칠 줄 모르는 섹스머신”이라고 여기는 데에서도 타자화된 흑인들의 고초를 느낄 수 있다. 조애너는 조부모의 감시와 양부의 정신적 억압에 시달리며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크리스마스를 이해하고 그와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기쁨을 맛보기 보다는 관계 후 무릎 꿇고 기도까지 강요하는 등 왜곡된 캘빈주의에 대한 이상 집착 증상을 보이다가 마침내 이를 참지 못한 크리스마스에게 살해당한다.

크리스마스는 여덟 살 때, 자신의 양부모인 사이먼 맥이천(Simon McEachern)이 교리문답을 외울 것을 강요하는 데에 반기를 들었다가 매를 맞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다(LA 149). 크리스마스는 이때부터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캘빈주의를 이때부터 혐오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캘빈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만든 삶의 왜곡된 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 여성과 여성적인 것에 대한 혐오증을 지니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 앳킨스 양 사건 뿐만 아니라 맥이천 부인이 그를 보살피고 옹호해 줄 때에도 그는 여성을 “희미한 악의 흔적이 있는”(168) 존재로 파악한다. 역설적이게도, 인간 합일을 이뤄야 할 종교와 여성이란 존재가 크리스마스에게는 인간 소외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팔월의 빛』의 전체에 걸쳐서 인종적으로 모호한 상태에서 나타나기에, “조 크리스마스라는 인물은 인종적, 또는 다른 정의를 피하며..... 의미화에 항거한다”(Wittenberg 153) 라고 지적된 바 있다. 크리스마스는 자신에게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간주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그와 함께 지내왔던 백인여성인 조애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나에게 감동이를 잡아와”(LA 291) 라고 보안관이 말하듯이, 바로 이 순간

에서야 크리스마스는 흑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남부 공동체가 만들어낸 인종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조 브라운과 함께 밀주업을 해온 크리스마스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흑인 목격자에 따르면, “두 명의 백인남자들”(293)이 바로 브라운과 크리스마스인 것이다. 흑인인 목격자가 백인이라고 분류한 크리스마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인들의 용의선상에 오르자 흑인으로 뒤바뀐다. 물론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리너의 출산을 위해 하이타워 목사와 함께 도우며, 교활한 브라운을 대체하리라 짐작되는 바이런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부분적으로 깡둥이다”(89).

애초에 임신한 리너를 버리고 몰래 제퍼슨 읍에 잠입한 브라운보다도 더 오랜 기간인 3년간 제퍼슨 읍에서 살아온 크리스마스는 이웃들에게 그보다 덜 알려졌을(LA 295) 정도로 고립되고 소외된 삶을 산다. 겁쟁이였다 거짓말을 잘하는 브라운은 “그의 입 주변에 팝콘처럼 하얀 상처를 지닌”(99) 인물로, 크리스마스의 그림자 이미지를 지니고서 그를 유다처럼 보상을 받고 팔아넘기려 시도하나 실패하고 만다. 브라운이 조애너의 살해 혐의를 크리스마스에게 씌우려 할 때, 보안관은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게 백인이라면, 당신이 말하는 걸 조심하는 게 좋아”(98) 라고 백인에 대한 우호적인 사고방식을 보인다. 브라운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밀고를 계속하여, “그는 깡둥이 피를 지니고 있다”(98) 라고 말하자, 보안관은 “깡둥이라구..... 난 항상 그 녀석에게 웃기는 점이 있다고 생각했지”(99) 라고 말한다. 인종주의는 살인 용의자의 흑/백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내적 독백에 의하면, “그녀[조애너]는 밤에 남자를 원하며, 낮에 그가 하는 일은 중요치 않다”(LA 272) 고 여긴다. 계속되는 크리스마스의 독백은 “그녀는 그녀고 나는 여전히 나일뿐”(272)이라며 더욱 더 철저한 고립과 소외를 느낀다. 크리스마스는 동료나 연인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33 년간의 철저한 고립과 고독, 소외된 삶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절망의 극한에 이르게 된다.

IV. 나오면서-삶의 비극성과 진실의 불확실성

포크너의 작품들이 지닌 보편적 성향은 클리언스 브룩스(Cleanth Brooks) (1983)의 속표지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 즉 포크너 소설이 지닌 “이중적 기능”은 포크너가 “남부 지역에 대한 자신의 집착”에 덧붙여 “특수 렌즈를 통하여 보편적 인간성을 확대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크너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바보스런 짓들과 욕망, 영웅주의는 모든 남녀에게 공통된 보편적 요소이다.” 이들의 기행(奇行)은 노벨 문학상 연설시 포크너가 강조하였듯이, “갈등하는 마음”(Meriwether 119)에서 비롯되었다. 남부 작가로서의 개성과 보편적 요소들을 모두 담기 위하여, 포크너는 개인의 심리와 집단 무의식을 감지하고, 현재와 과거의 삶을 포용하는 신화나 상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포크너의 문학이 지닌 보편적 의미는 심리적, 신화적 차원을 자신의 허구적 세계에 폭 넓게 수용한 데 있다. 신화나 성서의 인유, 상징주의 등을 사용하여 인간 의식과 무의식의 탐구를 통하여 포크너는 인간 소외의 주제와 맹목적인 외부의 힘에 맞서는 개인의 자유의지, 인간 합일의 과정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포크너는 남부지역작가로서 남부사회의 변화에 대한 역사의식과 함께 이를 넘어서는 철학적 깊이와 상상력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공명하는 포크너 문학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제시한 철학의 3대 과제 중 하나인 인간 존재의 “모호성”과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란 장르가 지닌 양극단인 “연민”과 “공포”의 균형을 강조했다면, 포크너 문학은 등장인물들의 기이함과 보편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인종적 모호성과 왜곡된 여성관 등 어두운 그림자 이미지를 지니는데, 동시에 보편성을 지닌다. 즉,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혈육상의 근원에 대하여 무지한 인물로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의 전설을 패러디한 전형적인 비극적 인물이다. 이처럼 심리적, 신화적 상징을 지닌 인물들의 기이한 행동과 의식적/무의식적 자아의 추구를 통하여 포크너는 현재와 과거가 공명하는 세계를 창조하였다. 포크너가 “당신 작품들 중에서 어느 인물이 가장 완벽히 비극에 다가서는가?”(Gwynn 119)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압살

롬, 암살롬!』의 첫펜과 『팔월의 빛』의 크리스마스와 『고함과 분노』의 딜지, “그들 세 인물들 중에서 나올 것”(119)이라며, “나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19) 라고 말하여, 이들 세 인물들 각각의 비극성을 모두 인정하였다.

『팔월의 빛』에는 크리스마스가 자신의 근원, 그 뿌리를 찾아서 헤매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를 인유 내지 패러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한 크리스마스가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의심을 하는 과정이 신화와 공명하여, 보편적 진실의 내용, 즉,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진실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내포한다.(김용석 146-6, 226) 따라서 『팔월의 빛』을 글쓰기 과정 자체, 내러티브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자신의 근원, 진실이 불확실한 오이디푸스의 신화처럼, 메타픽션으로서의 『팔월의 빛』은 진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구조, 서사 구조라는 것이 그 근원이 불확실함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다(Miller 72-4).

결국, 『팔월의 빛』은 개인적 집단적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 덧붙여 신화와 상징의 의미를 혼용하여 그 보편적 의미를 찾으려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융의 집단 무의식, 그림자와 아니마라는 개념, 그리고 오이디푸스 신화와 연관된 크리스마스의 비극적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텍스트 자체나 진리의 근원에 대한 의심과 탐구이기도 한 『팔월의 빛』에서 포크너 문학이 지닌 이와 같은 보편성을 엿볼 수 있다.

인 용 문 헌

- 김용석. 『메두사의 시선』. 서울: 푸른숲, 2010.
- 김옥동. 『팔월의 빛, 윌리엄 포크너, 삶의 비극적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데이비드 민터. 『포크너』. 신명아 역. 서울: 책세상, 1999.
- 앤터니 스토. 『응』. 이종인 역. 서울: 시공사, 1999.
- 존 하워드 그리핀. 『블랙 라이크 미』. 하운숙 역. 서울: 살림, 2009.
- Aristotle. *Aristotle's Poetics*. Trans. James Hutton. New York: Norton, 1982.
- Bleiskasten, André. "Light in August: The Closed Society and Its Subjects." *New Essays on Light in August*. Ed. Michael Millgate. Cambridge: Cambridge UP, 1987. 81-102.
- Brooks, Cleanth. *William Faulkner: First Encounters*. New Haven: Yale UP, 1983.
- Bush, Laura L. "A Very American Power Struggle: The Color of Rape in *Light in August*." *Mississippi Quarterly* 51 (1998): 1999.
- Collins, Carvel. "The Pairing of *The Sound and the Fury* and *As I Lay Dying*."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Chronicle* 18 (1957): 115-9.
- Dobie, Ann B. *Theory into Practice: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Boston: Wadsworth, 2002.
- Fargnoli, A. Nicholas and Michael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New York: Checkmark, 2002.
- Faulkner, William. *The Sound and the Fury*.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1990.
- _____. *As I Lay Dying*.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1990.
- _____. *Light in August*.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1990.

- _____. *Absalom, Absalom!*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1990.
- Gwynn, Frederick L.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ity*.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95.
- Irwin, John T. *Doubling and Incest/Repetition and Revenge: A Speculative Reading of Faulkner*.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5.
- Jung, Carl G. & M.-L. von Franz, et al. *Man and his Symbols*. London: Aldus, 1964.
- Meriwether, James B., ed. *William Faulkner: Essays, Speeches & Public Letter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4.
- Miller, J. Hillis. "Narrative."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Ed. Frank Lentricchia & Thomas McLaughlin. Chicago: U of Chicago P, 1990.
- Millgate, Michael. *The Achievement of William Faulkner*.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1978.
- Minter, David. *William Faulkner: His Life and Work*.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0.
- Ruppersburg, Hugh. *Reading Faulkner: Light in August: Glossary and Commentary*, UP of Mississippi, 1994.
- Tebbetts, Terrell L. "Shadows of Jung: A Psychological Approach to *Light in August*."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22 (1989): 80-95.
- Wittenberg, Judith Bryant. "Race in *Light in August*: Word-symbols and Obverse Refle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William Faulkner*. Ed. Philip M. Weinstein. Cambridge: Cambridge UP, 1995. 146-167.

Abstract

The Patriarchal Southern Community and the Oedipal Situation in *Light in August*

Gil-Wha Chung

In William Faulkner's *Light in August* (1932), the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beings may reflect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the Southerners who suffer from the oppressive outer forces, the white patriarchy which dominated the Southern community of the Deep South. When it comes to the marginal beings of Faulkner's Yoknapatawpha County and the town, Jefferson, the community members are obsessed with the shadow images which may be interpreted as Jungian collective unconscious features.

The Reverend Gail Hightower recollects of the past, his grandfather at "that transitory moment of lost grandeur" which comes out through his imagination and fantasies. The flux of time exists with its spatialized moment at which Faulkner, as an artist, hopes to arrest his own truth. The strangeness of dreams or fantasies of Faulkner's characters reflects the human alienation and their struggle to survive, and their free will against the oppressive Southern community, as well.

Joe Christmas, who is in an Oedipal situation, may be regarded as an archetypal hero or villain who comes to be a victim of his strange community. Like the Oedipus myth, Christmas becomes a tragic figure and through his evasive and equivocal behavior the reader may feel pity and horror. Through Christmas's apocryphal parentage and his desperate situation like Oedipus, Faulkner shows that he delved into the deep structure of the human psyche, and asked the universal question,

"Who/What am I?" and attained the universal goal inherent in his creation.

Key words: Southern community, shadow, racism, sexism, unity in man,
Oedipal situation, alienation, free will

남부공동체, 그림자,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인간합일, 오이디푸스적 상황, 소외, 자유의지

논문접수일: 2011. 11. 01

심사완료일: 2011. 12. 01

게재확정일: 2011. 12. 20

이름: 정길화

소속: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산 150 영산대학교

이메일: gila88@hanmail.net

к с і